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시설공사비 지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부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된 도서관으로, 주민 모두가 양질의 책을 볼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도서관입니다. 동양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이용하여 만든 도서관으로 도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의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주민에서 시작하여 주민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공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좋은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길 바라며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다는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개관 후 서가 정비를 하지 못하여 아동방, 유아방 등은 유아동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서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가 교체는 우리 도서관 운영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 도서관 이용 안전과 도서 보관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해결방안이 없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도서관의 노후화된 책장, 미흡한 난방 장치 등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로 개선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차에 이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노후 서가를 개선하였지요. 그리고 동시에 전체 노후 서가를 교체하면서 미비한 난방 시설 장치 또한 우리 아파트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책을 보는 아이들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이번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서가를 모두 교체하였고, 수량도 대폭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이후 유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확장된 서가로 더 많은 도서를 꽂을 수 있고 도서 찾기가 더 편해졌다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하시며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또한 봉사자들도 모두가 더 친근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쾌적하고 예쁘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들 너무도 열심히 참여하였고, 책 이동 및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했던 공사 이후 확장된 서가로 자원봉사자들도 도서 배치, 도서 반납 등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 공사 전 서가 모습



▲ 공사 후 서가 모습





긴급지원119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서관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일산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체 홍보를 하신다며 사진 촬영을 하러 오셨습니다. 향후에는 도서 대출을 하러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시던 이용자께서, 공사하기 전 책 빼내는 작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한다며 큰 수박 두 덩이를 사오셨습니다. 그 수박이 어찌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마움의 정도가 잘 묻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박이었습니다.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쾌적하게 변화된 도서관을 더욱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아리 모집에 힘쓰려고 합니다. 주부 독서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 EM비누 만들기 동아리, 영자신문 만들기 등등 다양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 도서관을 보니 긴급지원119사업에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달라진 도서관 전경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도서관이 변화되었음을 아파트 게시판과 도서관 앞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더욱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고 사랑방 같은 도서관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도서관 활동가는 지역의 독서문화를 이끄는 능력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